



김시훈

한재승

‘이적생 합류’ KIA 불펜, 부진 딛고 반등 기폭제 될까



현재까지 평균자책점 5.09...키움 이어 가장 높아
김시훈·한재승, 2경기 만에 승리 챙기며 기대감

트레이드 이적생 합류로 전력을 보강한 KIA타이거즈 불펜진이 부진을 딛고 반등을 이룰 수 있을까. 5일 경기 전 기준 KIA 불펜진의 평균자책점은 5.09. 키움(6.46)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다. KIA는 올 시즌 불안정한 뒷문으로 인해 허무하게 패배하는 경기가 많았다. 3월부터 전상현, 이준영, 정해영 등 주축 자원들이 줄지어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선발진이 호투를 펼치더라도 승리를 따내긴 쉽지 않았다. 5월까지 이러한 양상은 계속됐다. 이후 6월에는 깜짝 반등했으나 후반기 들어 다시 불안한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치러진 LG·롯데와의 6연전에서는 부진이 극에 달했다. 이 기간 KIA 불펜진은 20이닝 26실점 평균자책점 10.80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WHIP(이닝당 출루허용률)도 2.35에 달했고, 피안타율은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4할대(0.415)를 기록했다. 6번의 패배 가운데 5번이나 불펜진이 패전 투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팀 순위 또한 급락을 면치 못했다. 결국 KIA는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달 28일 NC와 3대 3 트레이드를 진행하며 불펜진을 보강한 것. 외야수 최원준·이우성, 내야수 홍중표를 내주

도 투수 김시훈·한재승과 내야수 정현장을 데려왔다. 김시훈은 2018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NC에 입단한 선수다. 필승조로도 활약했고 선발로도 출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한재승 역시 2021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4라운드로 NC에 지명된 선수다. 올 시즌 KIA 합류 전까지 18경기에서 18이닝을 투구하며 1패 평균자책점 3.00으로 활약했다. KIA는 즉시 전력감 우완 불펜인 이들을 29일 곧바로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그리고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김시훈은 29일 두산전에서 구원 등판해 1.2이닝 2실점으로 부진했으나, 지난 1일 한화전에서 2.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팀의 3-2 승리를 이끈 그는 KIA에 합류한 지 단 2경기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이러한 변화구로 주목받으며 필승조에

도 오를 가능성을 입증했다. 물론 구속과 구위에서 보강은 필요하다. 한재승도 패투를 선보였다. 31일 두산전에서 5회 1사 후 등판한 그는 양의지에게 홈런 1개를 허용했지만, 6회까지 이닝을 막아냈다. 1.2이닝을 2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1실점(1자책)으로 버티면서 팀이 3-2로 승리, 한재승은 승리 투수가 됐다. 다음 등판에도 호투가 계속됐다. 지난 1일 한화전에서 팀이 3-2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라 노시환을 헛스윙 삼진, 채은성을 땅볼로 속아냈다. 이어 안치홍에게 안타를 허용했으나 이상혁을 견제구로 잡아내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KIA에 오자마자 승리에 이어 세이브까지 챙긴 순간이었다. 이로써 KIA는 7연패를 끊고 2연승을 달리면서 지난주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이 연승을 모두 1점차로 이뤄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에 불펜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불펜에서는 필승조 조상우와 이준영이 지난 달 31일 1군 엔트리에 제외된 상태. 심리적인 문제와 체력 부담이 있다는 점 때문에 휴식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이 정상 컨디션을 찾고 1군에 다시 합류한다면 불펜은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이범호 감독도 조상우에 대해 "(조)상우의 경우 구위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불륜을 하고 점수를 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중요한 상황에 올라와 홀드도 많이 해줬다. 머리를 식힌 후 다시 올라오면 남은 경기에서 충분히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적생의 합류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 KIA 불펜진이 앞으로 팀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위, 국제대회 참가비 지원

보치아연맹 선수 2명에게 총 300만원 지급

광주시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가 보치아 선수 2명에게 국제대회 참가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5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현성 사무처장, 정형렬 발전위원회 추진부위원장, 박혜경 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이사, 김서현 감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금 대상 선수는 한국알프스스포츠협회 소속의 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문찬국(스프리즈등급-BC1)·나미숙(스프리즈등급-BC4)이다. 문찬국 선수는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서 동메달을, 나미숙 선수는 개인전 금메달 획득 및 현재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로 발탁돼 있다. 이번 지원금으로 출전하는 대회는 '아스타나(카자흐스탄) 2025 월드 보치아 챌린저대회'로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급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비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 향상을 향해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16일 광주장애인태권도협회 장애인학생 선수 2명 격려금 지급에 이어 다시 한번 장애인체육 선수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는 정선교 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발전위원회 후원금이 장애인체육 발전과 선수 육성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면서 선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축구교실 '드림킵스' 출발

올해 11월까지 진행...선수·코치 참여
축구 문화 확대·지역사회와 교류 기대

프로축구 광주FC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광주FC 드림킵스'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광주FC는 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 축구교실 '광주FC 드림킵스'가 모집 2주 만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광주FC 드림킵스는 광주 선수단과 유소년 코치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축구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축구 문화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 어린이 및 가족 단위 팬층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첫 수업에서는 강희수, 박성훈 선수가 살레시오 초등학교를 찾아 30여 명의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4일에는 문민서·홍용준 선수가 양지초등학교를, 김동화·김윤호 선수가 살레시오 초등학교를 방문해 축구교실을 진행했다. 축구교실은 선수 소개 및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패스·슈팅 등 기본기 훈련, 미니 게임, 사인 및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선수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으로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으며, 참가한 학생들 또한 적



광주FC는 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 축구교실 '광주FC 드림킵스'가 모집 2주 만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극적인 자세와 열정적인 반응으로 수업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골키퍼를 꿈꾸지만 마땅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한 학생의 사연을 들은 김동화 선수가 자발적으로 나서 1대 1 강의를 진행해 훈련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축구교실에 참여한 김동화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감사했다"며 "오

늘의 즐거운 만남이 경기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주FC 드림킵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광주FC가 공동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학생들과의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